

Market Index / 22일

코스피지수 ▲ 2064.86 +3.61

코스닥지수 ▲ 706.93 +2.95

유가(WTI, 달러) ▼ 63.13 -0.08

환율(원)

1USD 1211.84 100¥ 1097.43

1170.16 1059.69

1EUR 1355.54 100¥ 180.40

1320.66 163.22

시장 눈치만... 송객수수료 규제 '차일피일'

문체부, 지난해 수수료 의존 여행사 퇴출근거 신설 올해 전담여행사 재지정 심사서 적용 않고 마무리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중국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송객 수수료 규제에 손을 놓고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는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행사를 말하며 문체부가 지정한다. 제주지역에는 모두 6개 업체가 지정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2일 "중국 전담여행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근 진행된 심사에서는 송객 수수료의 적정 수준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일 중국 전담여행사 중 관광객 무단이탈률이 과다하거나 전담여행사 명의를 비전담 여행사에게 빌려준 6곳을 퇴출하는 것으로 재지정 심사를 마무리했다.

중국 단체 관광의 고급화를 위해 과도한 송객 수수료 지급 관행을 손보겠다고 발표한 문체부가 대책만 발표해놓고 정작 실행에는 옮기지 않은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시행 지침을 개정해 '불합리한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경로가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등 단일화 돼 수익에 대한 합리성이 낮은 곳'에 대해선 수시로 퇴출할 수 있게 규정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송객수수료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1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지정 심사서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 여행사를 퇴출시키려면 '송객수수료는 매출에서 몇 %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식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문체부는 중국 단체 관광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면 그 때까지 적정한 송객수수료 수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90% 가량 줄어든 상태에서 송객수수료를 규제하면 여행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면서 "중국 단체 관광 시장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여행사만 퇴출하고 송객 수수료에 대한 심사는 유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중국 단체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경우 시장이 혼탁해질 것을 대비해 송객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먼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면 전담여행사 매출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해 분석해야 하는 데 중국 단체 관광객이 90% 가량 감소한 지금 상황에서는 분석 대상에 올린 자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주간 재테크 핫 이슈 원화 약세 이후를 준비하자

경기 민감 섹터들 관심·비중 확대를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과거 원화 약세 시에는 1달러에 100원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과거 원화약세기에는 달러 대비 평균 10% 정도 절하돼 왔다. 현재까지 원화 약세는 달러 대비 약 6% 절하돼 과거 대비 아직까지 심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 통화 대비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가 많이 진행된 것도 사실이나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더 좋다는 제도적 이유 등으로 인해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사실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원화 약세가 과거와 차별화 되는 점은 원화 약세가 아시아통화들 중에서 더 진행된 적은 있었지만 다른 아시아통화들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아시아통화들이 꽤

하다. 미국과 중국이 강경한 스탠스를 최근에 보이고 있어 미중 갈등이 이전 수준으로 단기간에 완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당분간 위안화 약세가 진행되고 이에 따른 원화 약세 역시 좀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이야기 한다면 현재 1달러당 6.9위안대로 진행된 위안화 약세가 진정된다면 원화 약세 역시 같이 진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원화 강세 국면에서는 한국증시가 신흥국 증시에 비해 좋은 성과를 보였기에 이에 맞춰 다시 한국 증시가 신흥국 대비 좋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안화 약세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아시아통화들이 꽤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 난망 속 원화 약세 지속 위안화 안정·원화 강세시 증시상황은 호전 예상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아시아통화들이 1.5% 절하될때 원화가 약 3%정도 절하됐는데 이번에는 아시아통화들이 1.5% 절하되는 동안 6% 넘게 절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원화 약세 움직임이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이는 데에는 반도체 가격 하락세를 중심으로 한국 경상수지 흑자 축소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4월 경상수지의 일시적 적자 전환 가능성이 원화 약세를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원화 약세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신흥국보다는 부진하지만 여타 신흥국 대비 좋은 성과를 보여왔던 한국 증시는 기초체력이 타 신흥국 대비 뛰어난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화 약세 국면에서 한국 증시가 신흥국 증시보다 더 약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 원화 약세가 단순히 제도적 편리함으로 인한 자금 유출입이 아닌 펀더멘털에 기인한 약세로 볼 수 있다. 또한 1/4분기 미국, 유로존, 중국의 경우에는 GDP가 기대 이상이었다면 대조적으로 한국 GDP 감소가 원화 약세를 심화시키게 된 원인이기도

고 1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달러 7위안의 경우에는 심리적 지지선으로 과거 두차례에 걸쳐서 고점을 형성했으며 중국 정부 역시 7위안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향후 위안화 약세가 7위안을 전후해 안정을 찾게 되면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한국 증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기에 현 상황에서 당장 원화 약세시 수혜 섹터에 대한 비중을 늘리기 보다는 원화 약세가 아닌 원화 절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화 강세시 수익률이 높았던 철강, 가전, IT, 은행 등 경기 민감 섹터들에 좀 더 관심을 두고 비중을 늘려 나갈 것이 좋을 것이다.



현정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대기업, 렌터카 총량제 동참해야" 제주지역 119개 렌터카업체 대표와 버스·전세버스·택시·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등 운수업계와 제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회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렌탈(주), (주)SK네트웍스, (주)한진, AJ렌터카, 해피렌터카는 제주도를 상대로 제시한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추수 청구 소송을 취하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중적 차원에서 렌터카 감차 사업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구축 본격화

한전, AMI구축사업 연내 추진·서비스 실증 제주 완전 보급... 실증 통해 전국 확대 예정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전력 제주본부(본부장 신재섭)는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기반의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위해 제주도에 AMI 구축 및 실증사업(이하 ATTS사업, AMI Transition Town)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AMI는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한 전력량계의 원격검침 및 실시간 사용량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전력계량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에 따라 고객은 실시간 전기요금 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효율적인 전력 사용 및 자발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신재생 및 전기차 충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주도의 CFI2030(탄소 없는 섬 Carbon

Free Island) 정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TTS사업은 연내 제주지역 전 고객(42만호)을 대상으로 AMI 보급을 완료하고 원격검침 및 전기품질관리 등 13개 분야의 AMI기반 신서비스 실증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20만호에 대해 보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AMI 보급 시 기존 전력량계를 전량 스마트미터로 교체하고 주요 통신방식도 전력선 통신(Power Line Communication) 및 4세대 통신방식인 LTE(Long Term Evloution)방식을 최적 융합해 통신 성공률 안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하귀2리	서흥동	유수암리	연동1.5름	토산리(급매)	와흘리	고산리
자연녹지(전) 일주도로점 223㎡ 바다, 한라산조망 2억2천	호텔 25실 해안도로점 전 객실 바다뷰 34억5천	계획관리(전) 2차선점할 400㎡ 오수관공사중, 다용도부지 1억7900만	마리나호텔사거리 인근 10층 중 7층 로열층 남향, 위치좋은 1억5200만	계획관리(과수원) 4m도로점할, 4056㎡ 건축가능토지 5억1천	계획관리(전) 전원주택부지 951㎡ 현과수원사용, 건축허가특 3억4500만	계획관리(전) 자연취락지구 731㎡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4억4600만

등록번호: 제 50110-2017-002100호 대표공인중개사: 노진업 위치: 연복로 606, 3층

제주향 공인중개사 064-723-8850 010-4692-0952

등록번호: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완희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726-4585 010-8660-1263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특)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포선면 가시리 계획관리 35,000㎡ (2차선점, 임·과)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오동동 전·임야 18,000㎡(생산관리지역) • 매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점)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 한경면 저지리 전 (11,000㎡) 계획관리지역 • 함림읍 용포리(주거지역) 2,000㎡ 바다점
---	---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문복

동부공인중개사 010-2800-4595 064-747-5115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원 • 해안동취락지구내 주택용지 788㎡ 5억 • 노형 6차선 점 자연녹지 2,025㎡ 52억 • 협재금강산도인근 신축주택 556/90㎡ 3.95억 • 수산동 제주지역인 카페용경관양호 620㎡ 3.1억 • 판포 바다경관 조 자연녹지 3028㎡ 6.4억원	※하귀택지개발내 2중주거 319㎡ 4.9억원 • 아라동기차촌내 1090㎡ 9.24억 •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400만원 • 유수암 펜션 건물488㎡ 대181㎡ 6억원 • 유수암 2차선 변 주택용지 519㎡ 2.5억 • 중문서측 일주도로 4차선 점 토지 8,244㎡ 45억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억 • 연동2중주거 4352㎡ 주택122㎡ 11억 • 여울 제1로인근 바다전경양호 969㎡ 11.7억 • 우도하고수동해수욕장인근 5,050㎡ 9.9억원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9억 • 서귀포양아장 16,169㎡ 100억원
---	---	---

• 예초기 / Brush Cutter • 잔디깎이 / Lawn Mower • 체인톱 / Chain Saw • 전정기 / Hedge Trimer • 송풍기 (낙엽청소) / Blower

잔디깎이 벌초기계 체인톱

정원살리관리 장비, 농업산업기계, 소형엔진 판매·정비

해륙기계 722-3414-5 757-0165

Green Clean!

이도동주민센터 KAI호텔 가산아파트 KAI호otel 가산아파트

삼성형 삼성형 자연사육물관 다리열 삼성형 삼성형 (인공자연사육관 옆)

제주시 삼성로 35(일도2동)